엄마가 더 아파

7일 광주시 북구 한 병원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네 살난 아들을 어머니가 근심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교들 "우수 신입생 잡아라"

광주, 선지원 40% 선발…23~28일 접수
교장·교사들 중학교 돌며 치열한 경쟁
우수학생들 대상 영·수·과 방학특강도

요즘 광주 A고등학교 B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중학교 방문'이다. 매일 음료수를 사들고 중학교 1곳씩을 찾아 우수 중학생 배정을 호소하고 있다.

B교장은 "광주만의 고입제도인 선지원 40% 선발 방식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우수 중학생을 사전에 유치하는 길 밖에 없다"면서 "우수 학생을 끌어오지 못하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고, 결국 '성적이 나쁜 고교'로 낙인 찍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또 다른 고교의 우수 중학생 유치전은 더욱 공격적이다. 교장은 물론 일선 교사들까지 중학교를 돌며 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학교는 주변 17개 중학교 우수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영어·수학·과학을 중심으로 무료 30시간 강의 등의 당근전략도 마련했다. 이 학교 교장은 "우수 학생들의 특정고교 쏠림 현상이 심하다"면서 "인구유출이 심한 동구 등은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이 적어 우수 중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일이 다가오면서 광주지역 일선 고교에서 우수 신입생 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선(先) 지원과 후(後) 지원으로 이원화된 고입 전형 때문이다.

7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고교들에 따르면 2010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원서접수일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다. 올해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2만3천여명이며, 이 중 1만6천569명이 일반계고에 진학하게 된다.

광주지역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일반계고교 진학 시 선지원 2개교와 후지원 5개교를 선택하게 되는 데,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가 선지원으로 진학한다. 나머지 60%는 후지원 학교에 배정된다.

선지원에선 학군이나 지역 구분없이 광주지역 모든 고교의 선택이 가능하며, 지원자 중 정원의 40%를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몰려들 경우 상위권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 같은 선지원 제도에 따라 성적 우수 중학생의 특정 고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매년 대학 진학률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일부 사립고교들로 우수 학생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명문고 경쟁에서 뒤진 일부 공립고와 사립고 등에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송원고가 최근 합격자 발표를 통해 우수 중학생 300여명을 선점하면서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광주의 모 고교 교장은 "우수 신입생을 많이 확보한 고교는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밖에 없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 언론에서까지 명문고 기준을 '입학성적 대비 졸업 성적향상률' 등이 아닌 서울대 몇명 합격 등으로 평가하다보니, 최상위권 학생 확보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영유아 플루 백신 접종 시작

부작용 우려 … 예약 취소율 병·의원마다 30~50%

생후 6개월 이상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신종 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된 7일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인 병의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몰려 들었다.

하지만 상당수 부모들은 잇따른 백신 부작용 소식에 불안한 탓인지 접종 전에 의사에게 부작용 여부를 재차 묻는가 하면 아이가 감기증세가 있는 부모들은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전화로 예약을 취소한 부모들도 상당수여서 병의원 마다 예약 취소율이 30~50%에 달했다.

광주시 북구 한 병원은 백신 접종 예약자가 110명이었으나 이날 하루 동안 실 접종은 57명에 불과해 무려 절반 가량이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날 오전 광주시 북구 H소아과를 찾은 김모(여·31)씨는 "신종플루 감염시 사망률이 영아가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 예약을 했지만 간혹 들리는 부작용 소식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의사와 상담 후 접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8세 미만 아동의 2차 접종 예약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 : //nip.cdc.go.kr/)를 통해 시작됐다.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차 접종을 받도록 돼 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으로부터 4주가 지난 후 가능하다.

북구의 한 소아과 관계자는 "전화문의는 물론 병원에 와서도 접종 후 부작용은 없는 지,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꼬치 꼬치 캐묻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올 추석때도 영광서 '짝퉁 굴비'

경찰, 중국산 조기 둔갑 판매 2억 부당이득 5명 검거

지난 추석을 전후로 중국산 냉동 조기가 국내 유명 굴비로 둔갑해 전국으로 팔려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에서 수입한 조기를 재가공해 국내 유명 굴비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영광군의 한 굴비업체 대표 A(51)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추석을 전후해 부산의 한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냉동 조기 5.3t을 사들인 뒤 해동과 염장작업을 거쳐 국내 유명 굴비로 가공해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원산지를 속인 '짝퉁 굴비'를 팔아 이 기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국내산 굴비만 납품한다'는 계약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아가며 다른 지역 굴비유통업체를 속여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저수지서 꺼낸 車에 시신 2구

광주 동구 선교동 … 4년 전 실종 형제 추정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승용차 내부에서 4년 전 가출 신고된 형제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2구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에 카렌스 승용차가 빠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물 밖으로 견인된 차량에서는 남성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차량 뒷좌석과 뒷문 유리창 사이 공간에서 발견된 시신 2구는 백골화된 상태였으며, 타살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시신의 옷차림과 옷에서 발견된 주민등록증,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시신이 지난 2005년 12월 가출 신고된 A(당시 43세)씨 형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물에 빠진 승용차는 A씨 소유로 확인됐으며, 최근 저수지 수량이 줄어들면서 차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에 실패한 형제가 채무를 고민하던 중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허위 해외 공사 미끼
수억 편취 50대 검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수천억원대 해외 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찬중)는 7일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발주한 수천억원대 상·하수도 공사 수주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0·춘천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광주시 광산구 모 중소기업 대표 K씨의 사무실에서 "카자흐스탄이 발주한 3천억원대 상·하수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7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가 K씨 등에게 약속한 수천억원대 상·하수도 건설공사는 이미 일본의 한 건설업체가 2005년 1월 낙찰받아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머지 일부 공정의 공사금액은 92억원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해당 국가의 실력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11개월간 매월 500만원의 급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취객 금품 훔친 10대 구속

광주남부경찰은 7일 길에 쓰러져 있던 취객의 금품을 훔친 황모(16)군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군은 지난 9월 27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모 마트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잠든 박모(46)씨에게 접근, 휴대전화와 지갑을 꺼내 가져가는 등 2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거남 딸 납치 돈 뜯어

영암경찰은 7일 변심한 동거남의 딸을 납치해 돈을 뜯어낸 김모(여·36)씨를 영리목적유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4일 영암군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과 3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하모(38)씨의 딸(10)을 유인한 뒤 하씨에게 딸을 돌려주는 대가로 57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암=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애정행각 말리는 식당 주인에 주먹질

쌍나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애인과 진한(?) 키스를 나누던 40대가 이를 말리던 식당 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경찰서행.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9)씨는 지난 6일 밤 8시5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 김모(35)씨의 P식당 안에서 자신의 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술김에 애인과 키스를 하는데, 이를 본 주인 김씨가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지나친 애정 행각은 자제해 달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나 폭력을 행사.

○…박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